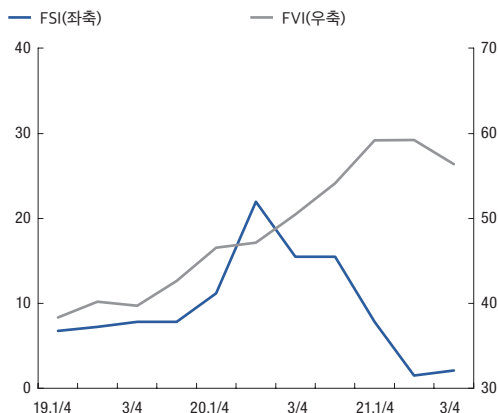

종합평가

금융안정지수 및 금융취약성지수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수출 호조 등으로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양호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디레버리징 및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금년 들어 금융안정지수(FSI)는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¹⁾(FVI)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²⁾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안정지수(FSI)¹⁾와 금융취약성지수(FVI)²⁾³⁾



주: 1) 금융안정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

2)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기관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3) 2021년 3/4분기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취약성 평가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³⁾ 가계의 경우 소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 및 생활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지원 조치 연장, 코로나19 관련 대출수요 등으로 높은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누중된 부채 수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

1)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자산가격, 신용축적 등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종합 지수화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지수로서 금융불균형 심화(완화)시 FVI는 상승(하락)하는 관계를 보인다. 보다 자세한 지수의 의미, 편제 및 산출 방법은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주요 현안 분석> 「1.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107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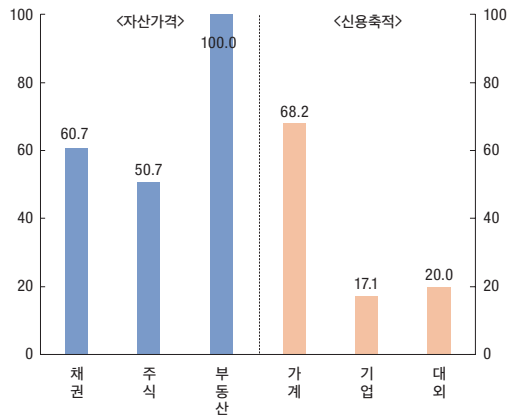
2) FVI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불균형 누중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여 2021년 1/4분기 및 2/4분기 59.2까지 높아졌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56.4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 FVI 평가요소 중 신용축적 총지수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지난해보다 소폭 높은 수준(20년 4/4분기 29.8 → 21년 1/4분기 30.1 → 2/4분기 30.3 → 3/4분기 30.0)을 유지하고 있다.

의 채무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기업은 높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 회복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자산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경우 기초경제여건 등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와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는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VI의 부문별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채권과 주식 부문 지수의 경우 2021년 3/4분기 들어 하락⁴⁾한 반면 부동산 부문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최고치인 100⁵⁾까지 높아졌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높은 위험·수익추구 성향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불균형 관련 부문별 지수¹⁾



주: 1) 2021년 3/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경기회복, 금융지원조치 연장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고 수익성도 대출 증가, 수수료 수입 증대 등에 힘입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큰 폭 상회하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상승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복원력도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도 대체로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이후 시행되었던 금융지원 조치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이 저하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4) FVI 채권 부문 지수는 2020년 2/4분기 49.1 → 4/4분기 55.1 → 2021년 2/4분기 62.3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3/4분기 들어 60.7로 하락하였다. 주식 부문 지수의 경우에도 2020년 2/4분기 27.3 → 4/4분기 42.5 → 2021년 2/4분기 54.0에서 3/4분기 50.7으로 낮아졌다.

5) FVI는 Min-Max 방식을 통해 역사적 최고치를 100으로, 최저치를 0으로 하여 지수의 범위를 0~100 사이로 한다.

리스크 요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높은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불균형 심화는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금융·경제 상황 악화 가능성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에 비추어볼 때 대외 불안 요인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경제주체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자본유출입 및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디레버리징 등으로 취약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

대외 여건과 함께 국내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차주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되겠으나 코로나 19 이후 부채를 크게 늘려온 가계의 과다채무 차주, 업황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딘 업종의 자영업자 등의 경우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가계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종 금융 지원 조치들이 2022년 3월 종료될 예정인 만큼 소득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딘 일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응 방안

대내외 여건 변화시 우리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이 부동산가격 상승세, 민간신용 증가세, 경제주체 위험·수익추구 성향 등에 미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 완화 조치 추가 정상화의 적절한 방법, 강도,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대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지원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노력 등을 지속해야 한다.

끝으로 대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화부채 건전성과 금융기관 복원력이 양호한 상황이나 과거 대외부문을 통한 금융위기 전이·확산 사례를 고려하여 시장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과 자금 유출입 동향, 대외지급능력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